

교단 2025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

2025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3일(월) 총회 고시 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 강의실에서 치러졌다.

2025년도 목사고시는 하루 일정으로 3일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3층 강의실에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날 예배는 고시위원 이경진 목사의 인도로 고시위원 김종현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호 목사는 엡 1:1-3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



하신다”고 전하고 목사의 직분으로 세워짐을 통해 진

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다.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필기시험이 시작되었다.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2교시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3교시 복음주의학, 기독교교육학, 헌법, 4교시 성경고시, 5교시 설교 및 면접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2025년도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총회에 올려져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 “구국의 책임, 주권자인 시민에게 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애국 실천할 것’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전국광역시도·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 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우리와 후손, 전 세계 인류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필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 기동으로 삼으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싸우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정선거를 찾아내어 국가 간격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

다. 2. 중공의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중공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공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선거 및 행정부의 핵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중공과 연계된 행보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공의 영향력 하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의 인해전술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들의 제침략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위기의 본질과 시민의 책임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의회 권력의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 탄핵과 비합

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구치소에서 침묵 속에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저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시의 군대 조직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가 해야 할 일



프루트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히 3:7~19)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만나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히 10:25)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아야 합니다. 여러 봉사모임에 참여하여 피차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고, 권면을 받는 즉시 성실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강박하게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사에 감사하였더라면 마음이 강박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이 기본 나뉠지라도 이런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면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백성을 인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

사소한 것이라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았던 복과 은혜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게 되니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처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하여 마음이 강박하게 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지금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로 나서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 一絲不亂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합시다.

1) 먼저 대통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를 하시되, 점심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중공 세력의 청산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공 세력과 그와 결탁한 대국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공작학원은 물론 중국공산당 직영 기구들이 많습니

다. 이들을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종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안보 기관들은 이들을 신고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총 일천만 불의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CIA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에도 입국에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불법 탄핵 동조자들 관리

불법자들을 고소하여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기관에 명단을 신고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각 지역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태를 논의하여 정책을 하거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간접 선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이슈를 도출하고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5) 지역별 싱크탱크 설립

각 지방 지역마다 싱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계몽교육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및 법률 지식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6) 국제사회와 및 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처

중공과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해외 기관들과 언론을 개발해 주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2번으로 이어집니다

한기총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은 23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 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선 고경환 목사에게 선거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따라 박수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립 박수로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후 소감을 발표하면서는 “이 길을 잘못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은 故 한경직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세운 기관이고, 그 뿌리는 기도다. 한기총의 그 뿌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과 9월에 기도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은 한국 사회가 박수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좌익이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기총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도록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과거 한기총에 과오가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한기총이 예

방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많이 회복됐다. 이제 한기총은 보수연합기관으로서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동안 한기총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장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꿈나무’ 찾아 나눔

권순웅 대표회장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한장총은 1월 23일(목)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꿈나무(시설장 박미자)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자립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격려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가족들의 공동생활체인 꿈나무를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생명경시 시대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립을 꿈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환난을 피하고 싶은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며 “환난 당한 한부모가족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보상이 있을 줄 알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미자 원장은 “먼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한장총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꿈나무는 미혼모자가 2년 동안 거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다섯 가정에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장총 서기 장인호 목사의 사회로 협동총무 김고현 목사의 기도와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의 설교, 박미자 시설장의 인사, 상임회장 이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 자립지원금을 전달했다.

1면에서 이어짐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 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별지)
예전에 우리는 6.25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는 침략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한 끌려갔기 때문에 울분이 쌓였습니다.
1.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남을, 조국

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떠 날을.

2.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남을, 불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러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후렴) 이제야 값으로.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이 겨레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탱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막아냈습니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멧도적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하여 후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그들에 넘어가 2500만 동포들이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주적입니다.

지금 중공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와 할 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6.25 노래는 후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분들의 유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으로 전염병으로 기후재앙으로 군부 반란으로 그리고 미국의 경제체제로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토를 모조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예감 전 감독 손선영 목사 필리핀 전도집회

인근 중·고등학교도 방문해 학생들에게 복음증거

예수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손선영 목사(선한목자기독교교회 담임)는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필리핀 불고스 지역에 위치한 군 뉴스교회(황광익 선교사 시무)에서 전도 집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불고스는 산지 지역으로서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가옥을 구성해 생활하는 곳으로 평지라고는 찾아보기 극히 어려운 곳이다. 이런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입이 없어 극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황광익 선

교사는 약 27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그동안 손선영 목사는 읍으로 양으로 군 뉴스교회에 선교를 돌다가 급변 기회에 전도대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에는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금번 전도집회를 통하여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생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해들은 참석자들은 행복과 기쁨 속에 충만하여 밝은 얼굴빛을 띄우며 즐거워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깨어 행동해야”

한·미 기독교계공동성명…韓세이브코리아·美애국기독교총연

한국 ‘세이브코리아(SAVE KOREA)’와 미국 ‘한국애국기독교총연합’이 공동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으며, 한국교회가 깨어나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월 29일(수)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 교회들은 자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로 위장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인권 침해와 억압을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한국 더불어민주당 카르텔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는 것이



미국 교회의 사명이고, 한국이 자유를 얻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교회는 박해, 불의와 불법, 인

권 침해에 대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공동 성명 취지를 전했다.

기교연, 2025년 신년 하례예배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안정 위해 기도

(사)기독교교회개혁연합회(이사장 남윤국 목사, 대표회장 박대규 목사/이하 기교연)는 지난 1월 1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용신로 소재 불꽃교회(담임 남윤국 목사)에서 2025년 신년 하례예배 및 교우협제34차 기도회를 갖고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남상봉 목사의 사회로 서기 최병배 목사의 기도, 연합회 임원과 찬양사역자 이기원 간사의 특별찬양, 대

표회장 박대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대규 목사는 윤 1: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가 요나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큰 고난을 겪은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나라를 회복시켜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회계 탁해경 목사의 헌금기도 후



상임회장 최봉길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늘바람별교회 박종관 목사가, ‘기교연과 총회와 단체를 위하여’ 예수사랑교회 송현순 목사가, ‘목회자를 위하여’ 창대이레교회 김예은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새별별미전교회 김선영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예배는 이번 회기에 새롭게 취임하는 임원진에 대한 임명패 수여식이 있었다. 대표회장 박대규 목사는 이날 교회경신협의회 최봉길 목사, 상임회장 이우성 목사, 회록서기 박종관 목사, 상임총무 이상철 목사, 교회경신협의회 부회장 김선영 목사에게 각각 임명패를 수여했다.

사무총장 남상봉 목사의 광고와 고문 김제환 목사의 축도 후 진행된 2부 신년인사는 참석자 모두가 기교연 발전을 위해 헌신자는 다짐과 함께 이사장 남윤국 목사를 비롯한 고문 이순주·오세백·김제환 목사가 새해 덕담을 통해 한해의 시작됨을 축하했다.

“이주배경학생 연구와 정책 제안의 장 열다”

이주배경학생 연구단체 공동학술대회·성결대 이민정책포럼 개최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김상식)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소장: 남기범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1월 16일(목)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야림 국제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연구단체 공동학술대회 및 제15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결대 김상식 총장을 비롯해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회장과 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통합교육 거점기관 지정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로, ‘이주배경학생 지원방안: 정책과 연구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정



책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정책연구회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책 소개 등 라운드테이

블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부터 성결대 동문 100여 명이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이민정책연구회의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기, 제주, 대구 지역의 주요 기관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 학회 세션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및 심리적 실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했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남기범 소장은 “이번 포럼이 학문적 탐구와 소통의 장으로서 우리 사회 융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모든 문제 해결될 것”

세기총, 2025년 신년하례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예배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1월 15일(수)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소재 과테말라한인교회(담임 김디모데 목사)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예배’와 함께 ‘제51차 한반도 자유·평

화통일 과테말라시티기도회’를 개최했다.

세기총은 이번 신년하례예배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는 애도 예배를 함께 드렸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이날



기도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1차에서 50차에 이르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의 역사와 취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어 준비위원장 김상돈 선교사(세기총 과테말라 지회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대회사 등이 있었다.

김상돈 선교사는 환영사를 통해 “2025년 신년하례 및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예배 및 제51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과테말라시티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북한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명의 말씀



양 정 섭 목사

- 한국교회개혁단협의회 대표회장
- 평안교회 당회장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절단코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말이나 행실로 교회에서나 형제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고 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입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세

상 모든 피조물은 자기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칭송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어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자 하면 죄를 항상 철저히 회개하고 양심을 바르게 갖고 진실만을 행하고 말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헤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다 얻고 누려도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고민과 걱정이 커지고 불

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아 누리고자 하나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증거한 말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막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돕게 하시는데 역사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다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배화여대 제13대 이후천 총장



11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화여자대학교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도약을 준비한다. 배화여자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이후천 교수(협성대 선교학)를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총장 후보로 지원한 4인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2인을 선정했으며, 이 중 선거를 통해 이후천 교수가 새 총장으로 선출됐다.

김정석 감독회장 주한 몽골 대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장이 최근 서울 광화문 본부 집무실에서 페렌 레이 우르진툰테의 주한 몽골 대사를 만나는 교섭교를 중심으로 한 몽골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직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노형석 노무사, 장세근 장로(주 담터 회장)가 동석했다.

이주민·다문화·난민 차세대 섬김



경기 파주 은혜와 평강교회(담임 이종율 목사)는 경기 북부지역 이주민교회 및 다문화 선교단체들이 함께 하는 열방선교네트워크(이사장 백성훈 목사, 대표 김광현 선교사)와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회에서 ‘제1회 차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는 이주민·다문화·난민 차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CCM가수 김조한 새 싱글 발매



신앙의 삶을 선교찬양으로 녹여내는 CCM가수 김조한의 새 싱글 ‘그 이름을 부릅니다’가 지난 1월 3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시편 150 프로젝트’의 열번째 곡이기도 하다. 신곡 ‘그 이름을 부릅니다’는 시편 10편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색다른 멜로디와 가사에 녹여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으로,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내란 공범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열댓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거대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인

지, 경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범죄자를 쫓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민들을 여러동절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카카오톡은 전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뭉개버린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와 같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모 대학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감열감시법’을 찬성한 바 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때로는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하

위 수준의 기존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는나?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개인 유튜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언론들보다, 차라리 자유스럽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기존의 언론들을 장악했다면, 유튜브는 우파를 상징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철저히 유튜브, 카카오톡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에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는가를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한구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철저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

리는 책동으로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정치적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현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하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고, 2018년에는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를 중국화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회를 크게 압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정세균 씨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1만개)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커뮤니티를 통한 박해를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커뮤니티 탄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만 가지고 협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해서 성공한 정당도 정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목양시평

“헌재가 헌법 파괴 계속한다면, 국민 저항권 행사할 것”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이하 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 1,200여 단체들이 지난 1월 24일(금)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먼저 공수처에 대해 “헌정사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

공수처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

근 80년 가까이 지행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법치주의를 버리는 반헌법 세력으로 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소가 맡고 있다.

1) 헌재는 ‘신속(swiftness)’ 보다 ‘신중(carefulness)’ 하게!

‘빠른(speedy)’ 판결보다 ‘바른(correct)’ 판결을!

헌재는 겉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끝없이 제재되는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무엇에 쫓기는지 속도에만 치우치고 있다.

헌재는 2회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앞으로는 매주 2회씩 기일을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미리 지정된 5차의 변론기일에 다시 2월 13일까지 3회를 추가해서 한 달 사이 총 8차의 변론기일을 압축해서 일괄 지정하는 등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또 헌재가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해서 피청구인 측이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헌재는 앞으로 겨우 한 달 남짓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국가가 정략적으로 청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선고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밖에 거대 야당이 먼저 청구한 9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

사건도 기한 없이 계류되어 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라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농락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헌재는 ‘신속’ 보다 ‘신중’을! ‘빠른 판결’ 보다는 ‘바른 판결’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2) 헌재는 ‘과정’도 ‘공정(justice)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급한 태도는 당연히 준용해야 할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헌재가 다른 기관의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등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헌재가 탄핵 심판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면서 내란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헌재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청구인 측 변론기일 연기신청도 즉시 기각했다. 헌재는 모든 심리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결과도 공정해야 할 것이다.

3) 탄핵이 각하되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청구요건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월 3일 대선 조급증에 빠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았던 ‘내란죄’를 현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헌법위반에만 집중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범위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주된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당연히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공유하여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탄핵 재판부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짜고 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미리 결론 내리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탄핵심판 사유의 철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국회의 재의결 없이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므로 실제적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탄핵심판 청구의 방식은 국회의 소추의결

서 정본을 청구서로 감응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가 되고, 국회의 탄핵 의결서 내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며 대통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심판 대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헌재는 즉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소추인단은 국회의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 특히 핵심적 사유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없다. 헌재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 탄핵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은 없다. 그간 ‘내란수고’에 대한 처단과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핵심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다. 헌재도 자체에 국회의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면 탄핵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헌재는 실제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란죄’의 철회로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상실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각하해야 한다.

4) ‘탄핵심리’ 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고, 아직 9명은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탄핵 낱발 임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탄핵안

들 보다 더 시급하고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할 심리는 다음 세 건의 권한쟁의 심판이다.

(1)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 헌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151명이나 200명이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하여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위의 순서대로 심리 판단 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져야 일의 순서인 것이다.

5)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하고 거꾸로 헌법파괴기관 노릇을 계속한다면 주권자인 자유 애국시민들도 이제는 마지막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의 행사로 광화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헌재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 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은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면 과감히 법복을 벗고 범조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외 1,200개 단체

“이 젊은 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주인공들 은혜충만 사명감충만... 청년봉사선교회 ‘2025 겨울수련회’

은혜와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청년 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1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전 15:58)는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열렸다. 청년들은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했다.

수련회 첫째 날,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회장단 임원 임명에 이어 조명제 목사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었다.

조명제 목사는 강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적극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①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②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③자신의 모든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④변함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⑤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청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며 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기도해 주었다.

첫날 저녁에는 같은 직종의 청년끼리 모여 직장 또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는 ‘GNTC 워크샵’ 시간을 가진데 이어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려, 우리 나라와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회와 조별모임(1)에 이어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후, 예수님 사



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세 가지 주제로 은혜와전리교회의 선교·봉사 부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고, 토론을 통해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속해서 ‘전체특강’과 ‘발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에 이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두 번째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다.

셋째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이어 네 가지 선택특강(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전망,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과 가정, 일상을 어



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진 청년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 청년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조별모임(II)에 이어진 폐회에 배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힘써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순복음연무대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 개최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1월 2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연무대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전임회장 정운기 목사는 수 1:6-9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대전지방회에 새로 가입한 최성필 목사, 천광희 목사를 전임총회장 김병목 목사가 환영 및 축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쟁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말씀충만, 성령충만.
목양일념.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효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30 청년층, 공정을 잃고 정치 편향된 사법부 규탄...부정선거 비판

부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두번째 기도회 개최,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 C 연사로 나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기도로 다시 회복시키는 부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세이브코리아')가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세이브코리아(대표 손현보 목사)는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현보 목사는 인사 메시지를 통해 좌파 카르텔과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손 목사는 "현재 극좌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양심과 상식이 사라졌다. 현재를 삼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종북 사법 카르텔은 대통령과 판사를 죽이는 마약 카르텔보다 더 악독하다. 이를 놔두면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라 말하며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했다.

이어 "MBC, JTBC, KBS 등 언론이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좌파 카르텔이 사법부, 선관위, 언론을 장악해 본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사법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을 잡아 퇴출시켜야한다. 이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자유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세이브코리아는 "공정한 헌법 재판소가 되기를, 2030 청년들과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모든 불법과 부정과 어둠의 카르텔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구호 제창을 통해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

발과 입법 독재를 비판했으며, 현재의 불공정성과 좌경화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과 술친구 극좌 문형배는 현재에서 즉시 사퇴하라", "이미션은 선을 넘었다. 이미션은 현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션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과 김미에 의원이 연단에 올라 격려사를 전했다.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도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킨 천병이었다. 천병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부산을 지켰기에 유엔군이 진주했으며,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이 자유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으며 "나는 애국 부산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미에 의원은 "내가 5년간 마주한 국회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변영이 아닌 이재명의 방탄만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기업을 살려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배분해 표를 얻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라고 말하며 국회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아웃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

주주의 대한민국, 변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목숨 걸고 앞장서겠다"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는 현 정국을 '제2의 한국전쟁'이라 지칭하며 '현시대는 장차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기록될 시기'라고 평했다. 김성원 대표는 "과거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국부 이승만은 이 나라의 위대한 주춧돌을 세웠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든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위기, 사법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비판했다. 김성원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언론, 산업, 법, 정당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휴민트, 군사기밀 모두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중국정당"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원 대표에 이어 최근 2030세대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전한길 강사는 연단에 올라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제목으로 "나는 기독교인,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전한길 강사는 언론을 향해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특히, 문형배의 불공정성과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함께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했다. 전한길 강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독서나 연구모임이 아닌 극단적으로 좌편향된 국가관을 가진 단체"라고 평했다. 그리고 문형배, 이미션, 정정미,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불의한 헌법재판관이라 지칭하며 "불의한 재판관들, 모두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한길 강사는 2030세대를 향해 "너무나 고맙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팔트 위에서 먼저 목소리 내어줘서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 이어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 안창호가 말했다. 우리

2030청년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현 시국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미 변호사는 "선관위 비리를 지적하면 명예훼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다. 이는 마치 과시즘"이라 말하며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다. 이어, "사부법위 사건으로 구속된 국민을 일벌백계한다는 법사위의 행태는 마치 넷플릭스를 봤다고 공개처형하는 공산당과 다를 것이 없다"며 선관위와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정 교

수는 "내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선관위 부정채용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7년 치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380명이 채용됐으며, 164회 채용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104회에 걸쳐 부정이 있었으며 353회에 걸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한다"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코리아나 밴드가 집회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랐다. 코리아나는 '승리를 위하여'와 '손에 손잡고'를 부르면서 '분열된 대한민국이 88올림픽 때처럼 하나로 화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부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약 10만 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석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색채가 강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과 시민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일 세이브코리아는 부산역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천 부평역 광장, 울산 현대백화점 옆,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열렸다. 세이브코리아는 이후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8일 부산 세이브코리아에는 유튜브TV 대표 유동규 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목회단상



유 봉 수 목사
예하성 정책위 부위원장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는데, 가롯 유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러 배반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 가롯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은 30년에 스승 예수를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배반자가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흔한지, 작가 조중환은 연극을 위한 작품으로 장한몽(長恨夢)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주요대사는 이렇습니다.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이 더러운 것아! "이수일은 너를 떠났다" "수일씨!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장이 있지요!" "더러운 것아! 대동강물이 한강물이 되어도 결코 다시 너를 찾지 않으리라" "오, 수일씨! 이것이 장한몽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마스크를 통해서 각 정당(政黨)의 달갑지 않은 배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뽀뽀스럽게 '예수님 외에도, 세상의 종교에도 다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는 WCC, WEA 등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배반자로서 '그 날에'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바른 삶과 정통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세진 분에게 받은 은혜를 저

버리지 맙시다.

사무엘하 9장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왕자는 다윗의 원수 된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버가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내가 화살을 쏘아 화살이 네 머리 위로 지나 땅에 꽂히거든, 쫓기가 빠지게 도망가라!" 일러주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왕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귀한 직분을 주고 왕궁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제자 중에 재정(財政)을 맡기까지 했지만(막 26: 15), 결국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배반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기독교계에서도 '배반의 도'를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으니 곧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리들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교리가 있다는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롯 유다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지역(任實郡, 옛이름 '오수')에 살던 김개인(金蓋仁)은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장날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데 개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장터에서 심하게 술에 취해 돌아오던 중에 그는 그만 쓰러져 잠들어 버렸

습니다. 그때쯤 산불이 일어나니 그는 자다가 봉변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주인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그 개가 근처 물이 있는 논에 가서 삼단 같은 털에 물을 묻혀 와서는 주인에게 가까이 오는 불을 막아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 이야기를 가려 '오수개(古)비석'을 세웠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모세의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12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26-27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함으로써 효도(孝道)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0세 되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와 역시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55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평생에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장(高麗葬, 고려 시대에 나이든 부모를 다른 곳에 버려두고 오던 풍습)이 폐지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터로 가서 어머니를 버려

두고 하산하려 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을까 염려하여 내가 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뿌려두었다. 그러니 표지를 잘 확인하고 길 잃지 말고 조심하 내려가거라." 이들은 이런 어머니를 산 속의 짐승의 밤이 되도록 버려둘 수 없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다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연이 여기저기 전해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판 고려장터'가 돈벌이 사업으로 각광받으며 버젓이 시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좋은 요양시설이라지만, 실은 자식과 입주자 결탁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감금해놓는 신종 고려장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는 큰 사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나 교사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난 교육을 시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능력을 길러줘야 했고, 학교는 교사들 중 질서와 도리를 무너트리는 전교조 교사를 축출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진정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을 위해 다 쓰지 말고 노후 대책을 위해 재산을 지니고 있으면서 유럽선 여행만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수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이제 세 희망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

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울지 말고, 살아 계시는 때 효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신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여 죽게 만든 예수님과 철천지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날 동에서 내일은 서에서, 오늘은 아시아에서 내일은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올라갔습니다.

6.25야전 때 전북(全北)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인민군 장교가 교회에 들어닥쳤습니다. 그 인민군은 벽에 걸린 예수님 그림을 떼어 바닥에 놓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안 뱉는 자는 다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살아야 나중에 주의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전도사님은 인민군 장교가 교회에 서서 퍼던 작두를 두고 협박하고 있을 때 오히려 침 뱉은 예수님 그림을 자신 의 옷으로 씻고서는 말했습니다. "나를 구원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 장로님은 전도사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오. 전도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젊으시니 사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후한이 없소이다!" 장로님은 그렇게 말한 뒤에 스스로 작두에 목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지켜보던 인민군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실, 나도 이복에서 교회를 다녔소. 남한 교회의 신앙은 어떤가 보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요!" 인민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침 뱉은 무리들을 뒷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관총으로 단숨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두 사람은 살려두어 파냈습니다. 인민군이 떠난 뒤에, 전도사와 노(老)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진을 정성껏 닦아서 다시 그 자리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고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가롯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인류사에서 영원한 배반의 상징이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복에 복을 받은 자요,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만이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결코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단, 우즈벡서 포럼

한국·미국·폴란드 3개국 교수진, 민영화·거버넌스 주제 발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단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국립은행금융대학원(Banking and Finance Academy, 이하 BFA)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한국), 오타와대학교(미국), 폴란드-일본IT대학교(Polish-Japanese Academy of IT, 이하 PJAIT) 교수진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Privatization and Governance'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동대 안진원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자유화, 무비자 입국 확대 등 개혁 성과를 분석하고 사립대학 허용 등 교육 분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BFA 수랴오 샤미로바(Surayyo Shaamirova) 교수는 이슬람 금융을 통한 그린산업 지원방안을, 오타와대 스트롬벡(Strombeck) 교수는 미국의 산업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BFA 잘랄로프 마슈쿠르벡(Jalalov



Mashkurbek) 교수는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금융산업 민영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PJAIT 코왈릭(Kowalik) 교수는 폴란드의 민영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무로드 호시모프(Elmurod Hoshimov) BFA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된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1월 15일과 16일에는 연세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동대 지범하 교수, 안진원 교수, 오타와대 스트롬벡 교수, PJAIT 코왈릭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검토, 체계적 준비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혜택, 브랜딩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가 다뤄졌다. 또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폴란드의 충격요법, 민영화와 기업성장, 금융산업 및 마케팅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수, 대학원생,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의에 참여했다.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협력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회 돌봄사각지역 섬길 수 있는 법령 개정

지역 내 영유아·노인·장애인 돌봄사각지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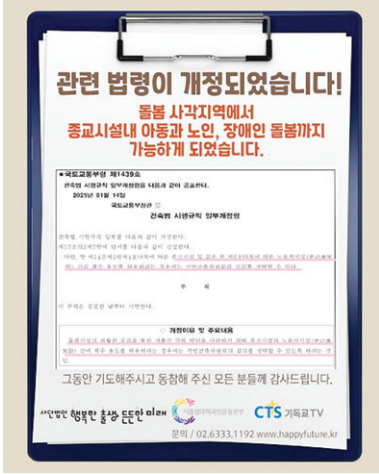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화)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에 의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또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종교시설에서는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돌봄이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종교시설이 돌봄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자 할 때 건축법 상 별도 공간을 직접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펼쳐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임법정원 운동의 열매이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임법정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 약 40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초저출생 극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의지를 알렸다. 이와 함께 CTS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저출생 관련 정책 제안을 주요 정당에 전달하며 국가위기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인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운동의 열매인 이번 법령 개



정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에 종교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과 종교인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홈페이지(<https://www.happyfuture.kr/post/3103214>)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TS는 지난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 '출산장려운동본부', 2021년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2년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 제안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국내의 저출생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저출생과의 전쟁-국내판'∙해외편'을 출간하기도 했다.

기독교 성극 '리턴' 4월 9일부터 1년간 장기 공연 돌입

기독교 성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연극 '리턴'이 4월 9일부터 1년간 장기 공연에 돌입한다. 지난해 대학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인 만큼, 올해에도 그 열기를 이어갈지 연극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극 '리턴'은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

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다. 극의 주인공인 '성용' 역을 연기한 김성환 전도사는 실제로 자신의 청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극본을 쓰고, 연출과 제작까지 맡았다.

그만큼 연극은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며, 과거를 살아온 부모 세대와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전도사는 "이 작품은 부모 세대가 MZ세대에게 전하는 소망과 사랑의 편지 같은 연극"이라며, 단순한 신앙극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성극은 대중성과 흥행성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연극 '리턴'은 지

난해 그 모

든 한계를 뛰어넘었다. 작품성과 감동적인 메시지로 일소문을 타며 전 회 매진 기록을 세웠고, 인터파크 관람평 10점 만점이 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논평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와 구금을 통해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이 중앙지법에 이첩되면서 대통령 구속 연장이 두 차례 신청되었다가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대면 조사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씌어 구속 기소하였다. 그 럼으로써 윤 대통령은 최대한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기소된 초유의 대통령이 되었다. 야당 대표는 5개의 혐의 1심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로 불구속 재판이라는 야당 대표의 투書を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현직 대통령은 무혐의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외신 기자 보도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여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 탄핵시에는 전혀 체포구금이나 구속 기소된 없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 기다렸다. 그런데 혐의 입증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속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이며 국가 원수가 제공 받아야할 국제 정보 소통에 방해를 주는 목적이 아닐 수 없다. 왜 현 집권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살통나비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위기를 알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내린 통치권자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한 배반이요 사법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같이 표명한다.

1.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기각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인해주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심문하고 구금하였고, 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각되자 검찰은 4시간만에 다시 재신청하였고 재기각당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여 즉각 석방하지 않고 직접 대면 수사없이 그동안 수사한 경찰 송치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구속 기소하였다. 2차례 구속 연장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구속 수사 여론에 따르지 않고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그를 파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었다. 사법부는 2차례 기각을 통하여 그동안 사법 질서의 혼란을 잘 정리해 주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씌운 기소 내용은 탄핵 심판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원된 군과 경찰이 국회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현재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차원이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라중군 특전사령관의 진술)는 정황을 새롭게 증언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증거로 그동안 언론들이 군 장성들의 증언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외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직속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보고를 했다고 했으나 조 원장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 윤 대통령도 “정치인 체포 명단 건넌 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법부와 현재가 진실의 실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대통령 구속 기소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짜맞춘 반역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공수처는 내란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서유 위조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소환’ (중앙지법의 남천구 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가 발부)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려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 보였다. 이법령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서부지법은 앞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

회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 발령했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란이란 수하인들이 반역하여 권력을 찬탈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하여 이를 6시간만에 해제하였다. 윤 대통령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5. 대통령은 공소 기각, 석방되어 현재 탄핵 심판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범치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 검찰의 대통령 공소는 대면수사 없는 부실 공소로서 법원에서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독수독과론에 따라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전부 무효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다. 법원은 직권 보석으로 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6. 현재는 형사 재판을 우선하여 현재 심판을 형사 재판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현재에서 변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유로운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검찰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사항이며 탄핵 심판에 그의 탄핵을 인용시키려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유래없는 이중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 주에 3회 이상 재판

정에 나가기 한다. 그리고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그날 뿐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도 크다.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배후에 거대 야당의 압력이 있다고들 본다.

지난 2월 1일 부산역, 서울 광화문 등 전국적인 12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춘천, 세종, 김천, 구미, 전주, 대구, 포항,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의 소리에 현재 재판관들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7.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에 서서 초당파적으로 사법부와 현재가 공정한 판결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와 극좌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친중국이나 중국 종속으로, 친북한이나 종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가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여 판결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 현재 재판관 세 분(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국민으로 정치 이념 편향적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 세 분은 국민의 감시와 역사의 평가앞에 서 있다는 자기 성찰을 해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여야 지지를 앞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사법부와 현재에서 탄핵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살통을 꾸꾸는 나비행동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 홍보 영상

‘꿈꾸는 아이들’ 선한 영향력 확산시킨다

지난 24일 진행된 비전아티스트 위촉식에 몽중다과와 월드비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위촉을 통해 몽중다과와 함께 국내 사업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홍보하며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 유튜브 채널 ‘꿈아이 TV’와 ‘몽중다과’ 채널이 협업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87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몽중다과’는 지난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쇼츠 영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몽중다과는 해당 영상의 한 달 수익금과 개인비용을 포함한 후원금 총 300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전달된 후원금은 월드비전 식생활취약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저녁 526기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이 밖에 사랑의 도시락 사업 영상은 조회수 약 350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급상승 영상에도 오르는 등 월드비전 사업 영향력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 영상 시청, 클릭, 공유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몽중다과 월드비전 비전아티스트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 주시고, 그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식사가 돼 아



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참 뜻깊었다”고 전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몽중다과님과 비전아티스트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몽중다과님과의 협력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비전아티스트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예술적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건축포럼

‘지속 성장을 위한 교회 건축’ 세미나

교회건축포럼이 “지속 성장을 위한 교회 건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2월 25일(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 골드홀(B1)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한국교회 건축 방향과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회 건축 사례와 지속 성장을 위한 솔루션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할에 맞는 공간, 활용성 등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다.

최두길 대표(아진건축사사무소)가 ‘지속 성장을 위한 브랜딩 교회 건축과 교회 건축의 리스크 방지 및 분쟁 해결’, 최종민 대표(에스쓰리글로벨)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어는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박정민 실장(크리스시스팀)이 ‘교회 미디어 흐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특강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그룹에서 마케팅 중역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인 최명화 대표(블로섬미)가 ‘시장 변화를 이끄는 2025 핵심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10시 30분 ~ 4시 30분

신청: 2025년 2월 25일까지 문자와 전화 선착순(전화 070-4355-3308, 문자 010-3966-1463)

문자 신청시 1. 교회명 2. 등록지명(직분) 3. 참석인원

4. 전화번호 기재

참가비: 3만 원(중식 및 기념품 제공)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 116:12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었디어 무릎 꿇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오 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

서. 우리 죄과를 도말해주소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위경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도와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에 빠신바 된 백성이 되게 도와주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양심이 도말 되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오 주여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살기 좋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게 하소서.

기도로 묵숨 거는 유명회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다 구원받는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한 영혼 위해서 영접기도에 전력 투구한다. 불철주야 복음전도! 오직 전도! 오늘도 영광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 총괄 본부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황보라·김보민,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운동본부 창립 34주년 홍보대사 위촉식

배우 황보라 씨와 성우 김보민 씨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1월 21일 위촉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운동본부 활동에 함께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해 왔다.

운동본부는 1991년 창립 이후 122만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며, 국내 최초 장기기증 운동기관으로서 장기기증 문화를 이끌어왔다.

지난 34년간 969건의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진행했으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혈액부식 환자를 위한 라파의 집 운영, 장기부전 환자 이식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배우 황보라 씨는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귀엽고 개성 있는 이미지로 주목받았다. 이후 드라마 ‘베가본드’, ‘하이아나’, ‘일타스캔들’, ‘가족X멜로’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초보 엄마로서의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황보라 씨는 지난 2012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후, 운동본부와 함께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2017년 각막기증 캠페인 ‘아이 프로미스 유’ 홍보 영상 촬영에 참여하고, 장기기증의 날 기념 바자회에 애장품을 기부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2019년에는 본부 소식지 ‘선한이웃’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을 진행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2020년 진행된 ‘아임도너헬린지’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인증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2021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날인 로즈데이를 기념해 ‘I Rose You’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인 나인퍼레이드에 동참, SNS를 통해 생명나눔 메시지를 널리 전한 바 있다.

황보라 씨는 “언젠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 운동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EBS 성우극회 25기로 데뷔한 성우 김보민 씨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더 글로리’ 주인공들을 성대모사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유튜브 채널 ‘쓰북만’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민 씨는 202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후 목소리를 통해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해 왔다. 2021년부터 다양한 영상과 오디오북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이어온 김보민 씨는 운동본부가 진행한 시각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생명나눔 교육 오디오북과 장기이식인 감사 편지 오디오북,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영상,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 특별사진전 안내 영상 등에 목소리 기부를 실천했다.

월간목회 2월호 ‘목회자의 말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

목회자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다. 설교 한 편, 위로의 한마디, 때로는 침묵조차 영혼을 치유하거나 상처를 낳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대표적인 말인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는 성스러운 작업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결여된 언어는 그저 겉데기에 불과하다.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단순한 기술적 훈련을 넘어선 깊은 애씀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가기 때문이다

『월간목회』 2025년 1월호는 지난해 특집 주제인 ‘목회자의 쓰기’, ‘목회자의 읽기’에 이어 ‘목회자의 말하기’에 관한 설교자들의 생각을 다뤘다. 이번 2월호는 그 연장선에서 말하기 전문가들에게 ‘목회자의 말하기’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협)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절대 신앙으로



신앙이란 절대성입니다. 상대성이나 형편성이라면 신념(신념)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또는 누구는 저렇게 살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절대신뢰, 하나님의 절대보호’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 삶이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벨론 법으로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는 큰 죄였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 우상인 금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나까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짐 받은 다니엘의 신앙도 하나님 절대 신뢰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축복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순종, 하나님의 절대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이삭도 죽지 않게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 신앙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만 순종한다면 불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하나님 신뢰,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절대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해당되는 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임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하심은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이 말씀..



십자가 대속의 예수님
그 죽음 앞에 주님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 진실의 눈물로
회심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때로는 옛사람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으며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발을 내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만유보다 크신 손이 되어
내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정말로 영생을 소유하여 거듭난 자는
결코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
아니.. 갈 수가 없다.
요 10:27-29 목상 중에
주신 마음을 고백하다.

사설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도 풀려주지 않고 계속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 어차피 법원의 명령도 듣지 않을 거면 왜 법원에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을까?

법원에서는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풀려주지 않고 구속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막가파도 없다. 검찰은 제정신인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인사들이다. 그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에 찬성을 한 비겁하고도 비열하고 치사하고 양심을 스스로 속인 속물들이 재판관들이다.

세상에 아무리 속물이라도, 비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근무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막무가내 인간은 세상천지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찬성해주었다고 한 것이다. 막 가자는 말 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무슨 일을 했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몰려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 눈에는 국민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는 막가파식 안하무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

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 탄핵법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정권 탈취를 위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다. 이 가운데 현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탄핵은 이제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였다.

그러면 무고죄가 해당이 안 될까?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다수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 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가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한다. 현재는 요진 마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근무하지도 않았는데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4명의 재판관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옳다고 찬성을 했으니 이게 제정신일까?

도대체 헌법재판관이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 탈취에 혈안이 되어서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미친 사회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5-1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3월 1일(토)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 상 : 교단 산하 청년들

동계 연합수련회 일정표		
시 간	2월 28일 (금)	3월 1일 (토)
07	여서와요~	기상 및 조식
08		경리 및 숙소, 성전 청소
09		찬양: 순복음아멘교회 신앙의 OMA (특별: 목사님들)
10		
11		
12		폐회 기도회 연도: 문찬우 목사
13	접 수	
14	개회예배 찬양: 오순절찬양교회 시화: 오세준 목사 기도: 장년 중 설교: 총회장 김명준 목사	접으로~
15	조별끼리 (아이스브레이크) (담당: 고대은 목사)	
16	휴 식	
17	찬양 콘서트 찬양시작자 소개: 문찬우 목사 (허즈빌 찬양 시역자)	
18	저녁식사 및 휴식 (조별로 식사 진행)	
19	특 강	
20	휴 식	
21	저녁 잠회	
22	공배와 찬양: 대관 병영교회 강사 소개: 문찬우 목사	
23	강 사: 김민찬 목사 기도회 연도: 문찬우 목사	
24	휴 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차장 문찬우 목사 010-5420-2787